

정치인 출신 회장 깜짝 낙점 IFRS·신지급여력 등 난제산적

생보협회장에 정희수원장 내정

회장추천위 2차 회의서 단독후보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합류
교보생명 출신, KB생명 사장 역임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1953년생인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부터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회추위가 정 내정자를 단독 후보로 추대할 이유로는 금융당국과의 소통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생보협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

생한 2014년 이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기류속에서 민간출신 회장 선임을 유지해 왔다.

다음달 8일 임기만료를 앞둔 신용길 현 회장은 교보생명 출신으로 KB생명 사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이수창 전임 회장은 삼성생명 사장을 지냈다. 업계 내부에서 민간 출신 회장들이 이전 관료 출신 회장들과 비교해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관료 출신 회장을 선임했다는 분석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대상이 아닌 점도 해당한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16년 5월에 19대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나 대사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 처리 과정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될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골자다. 보험사들이 결산시기마다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해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FRS17 시행 시 막대한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길수 있다는 것. 현재 과거 고금리 보장 상품을 많이 판 곳 위주로 재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임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생보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시리즈가 2년 8개월만에 800만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800만 좌 돌파

단일 상품 시리즈 업계 최단 기록

우리카드는 대표상품 '카드의정석' 시리즈가 인기를 끌며 이달 24일 800만 좌 돌파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일 상품 시리즈로 2년 8개월만에 달성한 업계 최단기간 기록으로, 매일 25만좌 이상의 상당한 발급 좌수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카드의정석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탑재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크기를 키웠다. 또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카드 플레이트로 디자인 만족도를 높인 점 등이 꼽힌다.

카드의정석 히트에 힘입어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브랜드평판 지수에서 1위

를 유지해오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뒤 올해 11월까지 18개월 동안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카드의정석 POINT' 첫 상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용카드 24종, 체크카드 10종을 출시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정원재 사장이 강조해온 '팔리는 상품'인 카드의정석의 성공을 통해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은행 등 모든 채널에서 고객이 카드의정석을 직접 찾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었고, 우카 마이너스론, 자동차 할부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에도 시너지를 발휘하며 회사 수익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코로나에도 카드사 해외법인 실적 '건조'

신한카드 4분기 3분기 순익 176억
KB국민카드 4분기 3분기 순익 23억까지 급증
우리카드 미얀마 전년비 74% 늘어

지난 3분기에 주요 카드사의 해외법인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진출한 아시아 국가 4곳(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의 올 3분기 순익은 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35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43% 증가한 것이다.

다만 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소 실적이 엇갈린 모양새다. 코로나 여파가 덜한 카자흐

스탄(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미얀마(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베트남(신한베트남파이낸스)에서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억원(38.0%), 5억(254%), 47억원(38.43%) 증가했다. 반면 최근까지도 하루 확진자 수가 4000~50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인도파이낸스'의 경우 3분기에 13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3분기 실적이 다소 하락했다"며 "당장의 손익과는 별개로 높은 성장성을 바라본 지역인 만큼 투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전체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 머물고 있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KB국민카드 현지법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KB대한특수은행'은 지난해 3분기 순익이 2억원에 불과했지만 올 3분기 들어 23억원까지 급증했다. 반면에 지난 8월 자회사로 편입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에서 2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카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얀마 현지법인 '투투파이낸스(TUTU Finance)'는 올 3분기 29억6000만원 가량 순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73.69% 늘었다.

/이영석 기자 ysl@

KB국민銀,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에 투자

한국디지털에셋에 전략적 투자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26일 밝혔다. KODA는 해치랩스와 해시드, KB국민은행이 투자를 통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이나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들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면 이들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래 및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니

즈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을 통해 KODA를 디지털자산 시장의 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난 7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은행인 DBS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은행들의 참여가 시작됐다.

국내에도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노보텔엠베서 더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경영대상은 녹색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 포상이다. 지난 2006년부터 녹색경영 추진과 환경산업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지구는 우리(WOORI)가 지킨다' 캠페인을 실시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포괄적 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자연재해 증가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욱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부응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더욱 많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NH농협은행

연말 맞이 외화모음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연말을 맞아 외화는 모으고 마음은 나누는 '2020 겨울, 외화모음 이벤트 1+1=훈 훈~'을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환전 또는 외화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00명을 추첨해 파riba게트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경품 금액만큼 기부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행복도 시락을 전달한다.

또 'SNS 행복 메시지 챌린지'를 실시해 12월에는 행복도시락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銀 일하는 방식 혁신 '스마트 워킹 플랫폼'

장소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워킹 플랫폼 앱인 '몰리메이트(MOLI-mate)'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몰리메이트는 기존 기능별 혼재돼 있던 19개의 직용용 앱을 통합한 새로운 직용용 스마트 워킹 플랫폼 앱이다. 업무 보조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이 아닌 일하는 방식을 혁신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T)을 추진하자는 진옥동은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앱은 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객 영업, 내부관리, 교육, 준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지식관리시스템인 '몰



리'를 탑재해 직원들이 탁상감정가 조회, 전세대출 상품추천, 주택담보대출도 조회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담 직원이 간편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 고객의 접근성 확대 및 업무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